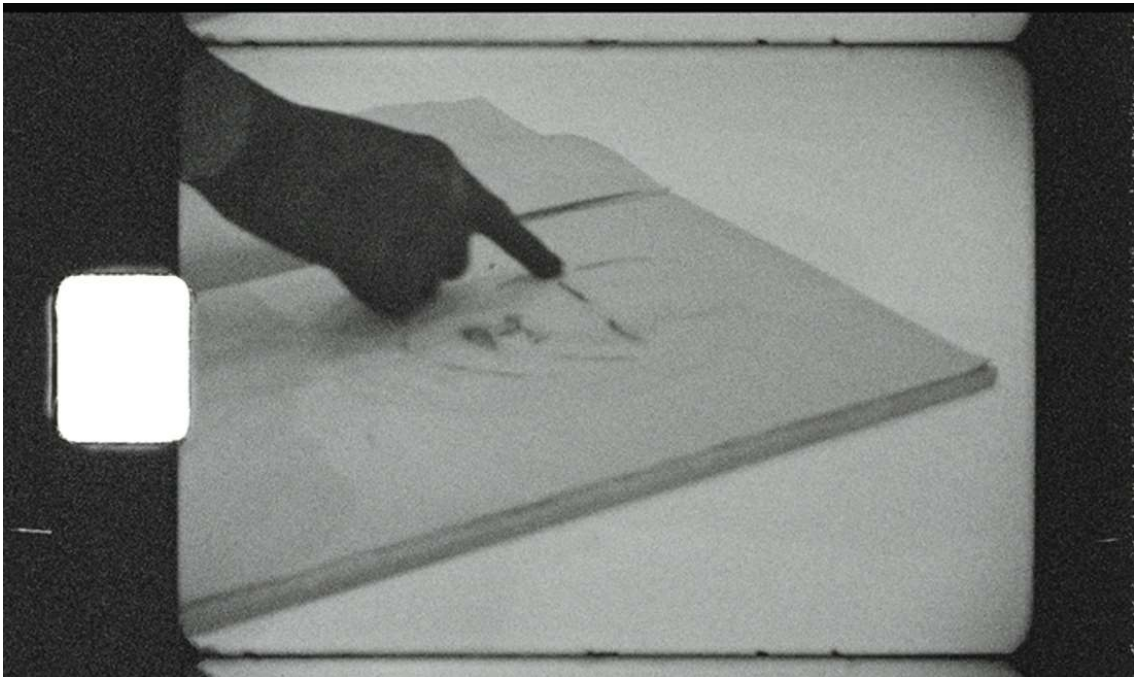


Maison
marie claire

2025 아트위크, 놓치면 후회할 예술 현장 48 선 I

2025.08.27 | Edit 원지은, 문혜준, 원하영

프리즈와 키아프, 그리고 을지로, 한남, 청담, 삼성 나잇 프로그램 등 대형 전시부터 실험적 퍼포먼스까지, 서울 전역이 예술로 물드는 9 월. 메종 기자와 아트 메신저들이 추천하는 전시와 공간을 소개한다.



Still image of *Éclipse*, 2025. The works appearing in the film are: Theresa Hak Kyung Cha: Art Practice – Untitled ~ Sketchbook – Drawings, Correspondence, Notes, Poems, Journal – 1974., 1974; A Strathmore Shelburne sketchbook with 11 loose sheets of paper with typewritten and handwritten text. The sketchbook is spiral bound, 78 pages.; 12 x 10 in.; University of California, 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; Gift of the Theresa Hak Kyung Cha Memorial Foundation

〈지미 로버트: 에클립세 ÉCLIPSE〉

바라캇 컨템포러리 8.28.~10.26.

퀴어 신체, 인종화된 몸, 그리고 '보는 것'의 권력을 해체하는 퍼포먼스가 열린다.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국내 첫 개인전을 여는 지미 로버트는 움직임과 제스처, 종이와 영상, 목소리 등 다층적 매체를 통해 가시성과 재현의 구조를 전복해왔다. 이번 전시는 그의 대표작과 더불어 신작 영상, 퍼포먼스 (9 월 4 일 오후 6 시, 8 시)를 함께 선보인다. 작가는 미국 버클리의 BAMPFA 미술관에 보관된 시인 차학경의 아카이브를 바탕으로, 그녀의 언어와 감각 세계를 오늘날의 신체와 예술로 다시 풀어낸다. 특히 사회 속에서 잘 보이지 않거나 언어화되지 못한 존재의 감정과 기억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고, 이를 움직임과 목소리로 표현하며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.